

# 광주세계수영대회 국비예산 집행 험로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개막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올해 증액된 230억원 규모의 국비예산 집행이 원활치 않아 광주시와 조직위 등이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3월이 돼서야 교부된 데다, 해당 예산도 자치단체경상보조 성격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어서 집행은 광주시가, 운영은 조직위가 따로따로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21일 광주시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추가로 증액된 광주세계수영대회 관련 국비 230억원을 승인하고 광주시에 교부했다.

지난해 광주시와 조직위의 요청으로 우여곡절 끝에 증액된 예산이지만 문체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승

## 능장 지원에 '집행 따로 운영 따로'

### 정부-광주시 협약이 발목...개선 시급

인이 상당기간 늦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수영대회 관련 주요 사업을 미뤄오던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도 뒤늦게 숨통이 트이면서 활기를 찾은 듯 했다. 하지만 집행방식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예산의 세부내역이 '국제경기대회 참여 분위기 조성'과 국제경기대회 안전종합 시스템 구축'으로 돼있지만 조직위원회가 바로 집행할 수 없다.

예산의 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여서 집행은 광주시가 하고 사업진행

과 운영은 조직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이중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집행계획서를 작성해 광주시로 올려 보내면 광주시 해당 부서가 다시 사업을 검토한 뒤 예산부서 승인과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개최시기를 고려해 조만간 추경예산 성립전 승인절차를 밟아 조직위에 관련 예산을 내려보낼 예정이지만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위 관계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광주시에 교부된 예산이 광주세

계수영대회 사업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문체부와 광주시가 지난 2017년 맺은 협약 때문이다.

이 협약서에는 '국비를 증액하지 않고 늘어나는 예산은 광주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와 예산 집행을 제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뒤늦게 원활한 사업진행을 가로막고 있다.

수영대회 관계자는 "조직위가 서류를 꾸며 광주시로 올리면 광주시는 다시 서류를 꾸미고 검토해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복잡한 절차지만 대회 성공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美 인기 유튜버, 영상 찍으려 입양아들 학대

미국 인기 아동용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영상에 출연한 입양 자녀 7명을 심각하게 학대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드(BI)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경찰은 유튜브 채널 '판타스틱 어드벤처' 운영자인 마셀 헤크니를 이달 초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헤크니는 입양한 7명의 아동들이 슈퍼히어로 복장을 입고 모험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극에 맞춰 연기를 하는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이 채널에 올려 약 80만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헤크니의 집에 감금된 상태로 학대를 받으며 동영상 촬영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기록에 따르면 헤크니는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아이들이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을 경우 때리거나 밥을 굶기거나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했다.

버즈피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각한 성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동들은 헤크니가 자신의 생식기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피가 날 때까지 꼬집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경찰은 처음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안색이 창백하거나 체중 미달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조사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고 진술했다. 또 한 명은 "몇 년 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양 아동들은 헤크니가 체포된 이후 모두 집에서 나와 당국의 보호 아래 있다. 헤크니는 7건의 아동학대와 5건의 불법 감금, 2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로 보석이 불가능한 구속 수감을 당한 상태다. 하지만 그는 아동 학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사용한 유일한 처벌 방법은 엉덩이를 때리거나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헤크니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번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지표 추적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는 판타스틱 어드벤처 채널이 매달 8900 달러에서 14만2400 달러(약 1000만~1억6000만원)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튜브는 헤크니의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되자 19일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판타스틱 어드벤처 채널을 폐쇄했다. 채널의 모든 세부 내용과 동영상들도 플랫폼에서 삭제됐다.

## 濠북부,시속 256km 사이클론 상륙 비상

시속 256km의 강풍과 함께 폭우를 동반한 사이클론 '트레버'가 오는 23일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북부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준주가 약 2000명의 주민들에 대한 소개 작업에 나섰다.

노던 테리토리의 수도 다윈 등쪽의 호주 동부 해안에 거주하는 주로 원주민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피에 나섰다.

호주 기상 당국은 사이클론 트레버가 매우 위험하며 미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마이를 건너 노던 테리토리 수석장관은 트레버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렌타리안 서부 해안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伊 스쿨버스 납치·방화...전원 구출

이탈리아에서 20일(현지시간) 어린이 50여명이 탑승한 스쿨버스를 30여 분간 납치해 불을 지르는 범행이 벌어졌다. 어린이의 빠른 구조 요청과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전원이 상해 없이 구출됐다.

범인은 세레갈 출신의 47세 스쿨버스 운전사로 정부의 난민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인을 납치 혐의로 검거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20일 오전 밀라노 외곽의 한 도로에서 중학교 2학년(만 11~12세) 학생들과 성인 보호자 51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전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12명의 어린이와 2명의 성인은 연기를 마셔 병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외부 활동을 마친 학생들을 학교로 데려다주던 범인은 갑자기 차량을 밀라노 방향으로 틀며 인질극을 벌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범인은 휘발유를 가득 실은 폴타스틱 통 두 개와 라이터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전화기를 압수했다. 또 서로의 손을 묶게 하고 "아무도 살아서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학생에 따르면 범인은 "바다에서 세 아이를 잃었다"며 "이프리카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루이지) 더 마이오와 (피넬로) 살비니 때문이다"고 정권을 비난했다.

구조된 학생은 "범인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때 경찰이 도착해 우리를 구했다"고 말했다.

## 소방청, 화재 대피 교육·홍보 '주력'

소방당국이 2020년까지 화재 대피 교육·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내년 말까지 '범부처 화재안전특별대책'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화재 대피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속한 대피만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방 통계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간 발생한 화재 12만9928건 중 인명 피해가 난 비율은 전체의 3.2%(4089건)였다.

사망자가 확인된 화재만 추려보면 0.6%(827건)에 그친다. 이 사망률은 미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인명 피해가 없는 화재의 공통된 특징은 신속한 대피가 이뤄졌다는 게 소방청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불 나면 대피 먼저'를 슬로건으로 삼아 교육·홍보사업을 펴기로 했다.

화재 행동요령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령·계층별 특성을 감안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화재 대피 5대 행동요령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또 우리집 화재대피 계획 수립 공모전과 같은 국민 참여형 이벤트와 전시·학술대회를 연다.

대피를 요하지 않는 화재의 효과적 초기 대처를 위해 소화기 사용법 요령도 교육한다.

뉴스스



봄이리면서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춘분'인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 위로 외투를 걸쳐 입고 있다.

## 전동킥보드 사고 4년간 528건...61%가 '제품 불량'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21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이다.

2015년 14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84건으로 증가하던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사고 원인의 절반이 '불량 및 고장'(264건·50%)으로 조사됐다. '파손'(60건·11.4%)까지 합하면 10건 중 6건이 제품 상태에 의한 사고로 나타나 전동킥보드 구매 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주의 등 운영 사고'는 182건

(34.4%), '배터리 불량 등 화재·과열·발연' 22건(4.2%)이었다.

소비자원은 국가통합인증(KC)마크·인증번호 확인과 함께 사후서비스(A/S) 및 생산불량상해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양손을 이용해 안전 운행하되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펴야 한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하차한 후 끌고 가야 한다.

비위가 작은 탓에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 전복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제품인 만큼 물이 묻지 않도록 하고 비오는 날 운행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

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시기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하다"며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14세는 건강검진이 운영되어나, 미취학 아동은 제외됩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